

사설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 되길

"군포교 비전 21이란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포교 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겠다" 지난해 발족된 군포교위원회의 교육적인 계획이다. 군영내 거주자 및 제대자 영의 거주자를 포함한 전군의 불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군소활동의 체계적 확립, 다양한 군포교 방법론의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0여년 역사의 기독교계의 군포활동은 불교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활발하며, 그 성과도 막대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70만 군장병과 가족, 군제대자들을 포함하면 그 선교의 대상은 100만명을 넘으리라 볼 수 있다. 때문에 30년전부터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를 창립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장병뿐만 아니라 제대자, 군인가족, 제대군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전선망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군포교 비전 21의 수립은 책박한 군포교 환경 개선을 위한 출발을 알리는 일이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군인 가족 내지 군승, 제대군인가족까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리라 본다. 물론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인 만큼 전종단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서두르지 말고 전종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조계종 영문홈페이지 의미

조계종이 11월 26일 영문홈페이지(<http://eng.buddhism.or.kr>)를 개통해 불교 세계화의 기틀을 업그레이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인터넷은 국경도 인종도 차별하지 않는 세계인의 공동공간이다. 그런 공간에 한국의 불교를 알리는 장치가 많으면 많은 수록 좋을 것이다.

그간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영문 홈페이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참신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계를 향한 한국불교의 홍보와 국제적 이미지 고양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상징이다. 여러 종단과 불교단체, 불교관련 학술단체와 대학, 문화 예술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세계화의 기류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적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문제는 아직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국어로 서비스되어야 하기에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호응 받을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과 정보의 고급화와 다양화도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 뿐인가. 늘 앞서가는 감각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주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죽은 사이트가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종단과 단체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조계종의 영문홈페이지 개통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쾌거임에 틀림이 없다.

개정 병역법·군인사법 싸고 논란

군신자수 대비 군종장교 허용기준에 이견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만 제한돼 온 군종장교를 다른 종교에도 개방하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불교 등 군종장교를 과감해온 기존 종교들이 관련 하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사행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등은 그동안 학사 이상을 가진 승려, 목사, 신부'로만 못 박았던 군종장교 자격을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발대상을 '불교대학, 신학대학'에서 '그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직자 양성 대학을 갖고 있는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 4개 종교단체들의 군종장교 파견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병역법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과정에서 행해 군종장교 허용

기준을 군신자 2만명 이상으로 제한한 국방부 훈령 조항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내 신자 수가 157명(0.1%)에 불과한 원불교의 경우, 하위법령의 손질이 없는 이상 군종장교 파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은 종교의 형평성만을 고려했을 뿐, 군 신자 수를 감안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을 간과한 법개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군 신자 수별 군종장교 허용 기준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국방부측에 전달하는 한편,

군종장교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군종실 정성진 군종법사는 "병역법 등은 개정이 됐지만, 국방부훈령 등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3개 종교 단체의 의견 수렴 및 법령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해 군종장교 자질 심사, 총원 여부·규모 비율 배정방법 등에 대한 종교간 입장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과 진각종은 11월 29일 군종장교 개방을 환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종단은 군종장교의 독자적인 파견보다, 조계종과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종장교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종회의원 사무처장 겸직 반대"

종원스님 거듭 주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원스님(전 관사 주지·사진)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중앙종회의원이 겸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 천명했다.

종원스님은 11월 23일 제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기자를 만나 "1994년 개정된 현재의 종현

에 종회사무처장이 겸직 불가 조항에서 제외된 것은 1962년 통합종단 이후 한반도 종회의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회 사무처장은 분명한 종무원이고 자격은 부장급에 해당한다. 지금처럼 종회가 계파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종회의원이 사무처 업무를 겸임 중립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종회의원이 갖는 면책특권과 종무원으로서의 과실에 대한 징계의 범위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순수 종무원이 사무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원스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법에 호소할 생각은 없으나 종단내 법규위원회 제소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기자

금강대 입학경쟁률 2.7대1

수시전형 마감, 사회과학부 5.3대1 최고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는 2003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최종마감한 결과, 30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해 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사회과학부가 5.3: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불교문화학

부는 4.8:1, 통역학부는 1.17: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금강대는 정시모집을 12월 11-13일까지 원서접수 받고, 2003년 1월 14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041) 731-3050

김철우 기자



△지홍스님 △승조스님 △일로스님 △호명스님

태고종 총무원 일부 부장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에 지홍스님(前 재무부장, 재무부장에 승조스님(前 사업부장, 사업부장에 호명스님(前 사업부장) 등을 각각

기획감사실장 지홍스님
재무부장 승조스님
사업부장 일로스님
사회부장 호명스님

임명했다. 총무부장 월해, 교무부장 법성, 규정부장 경민, 교임부장 동우 스님등은 유임됐다.

김철우 기자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기 2547년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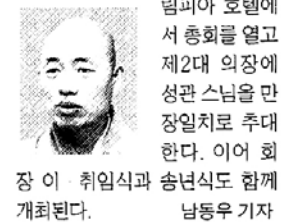
1차 강습회는 16-20일까지, 2차 강습회는 내년 1월 13-17일까지며, 강습 대상은 연동축재 참가단체 제작자 1, 2차 각각 40명씩이다. (02)725-6641

한명우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의장 성관스님 추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의장에 성관 스님(수원포교당 주지·사진)이 추대된다.

승가회는 9일 오후 4시 서울을



장 이 취임식과 송년식도 함께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범종단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만공스님께서 주석하신...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선원으로 면모일신 합니다

수덕사 (정혜사) 능인선원 대작불사

그 세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만공선사께서 주석하며 쇠미해가는 선풍을 다시 일으킨 이곳 덕승총림 정혜사 능인선원은 한국 선불교사에서 국내 최고의 선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량불사를 거의 하지 못하여 작금에는 명망과는 달리 전국 선원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수행·정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덕승총림 수덕사에서는 이곳에서 정진납자들이 같고 닦는 선수행이 지구촌 인류의 삶을 밝혀주는 장명등이 되어 온 법계를 비치며 맑고 깨끗한 감로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근세 선불교의 산실로 걸맞으면서도 제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하여 대작불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뜻있는 많은 분들의 발원공덕으로 조속한 시일에 회향되어 우주의 본체가 무형무적하고 공색이 상응하며 선교가 불이하여 생사가 자재하고 조화가 무궁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수회동참하시어 복종의 제일 복인 인연복을 찾는 계기가 되시길 분향 합장발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승총림 수덕사 주지 김법장

동참방법
연락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수덕사 총무소
전화 041)337-6565
팩스 041)337-0072
계좌번호 : 310821-01-001544 (우체국) 예금주 수덕사
E-mail : sudeoksa@sudeoksa.com
홈페이지 : http://www.sudeoksa.com